

## 청소년 의생활의 실태조사 -서울지역 여자 중·고·대학생을 중심으로-

조진숙

경원대학교 생활과학대학 의상학과 전임강사

### A Study on the Clothing Practices of Korean Girl's Junior High School & University Students

Jean Suk Cho

Dept. of Fashion Design, Full-time Instructor of Kyung Won University

#### 目次

Abstract	1. 착용의복의 종류
I. 서론	2. 착용선택동기
II. 연구방법	3. 착용감
1. 연구대상	4. 선호 스타일과 실루엣
2. 연구방법	IV. 결론 및 제언
3. 연구조사 내용	참고문헌
III. 분석결과 및 고찰	

#### Abstract

The main purpose of the study were to investigate a selection motive of clothing and feeling of wearing of Korean junior, high school & university students.

The results were as follows;

1. For underwear, the body appearance and hygienical aspect were shown as important factors in a selection motive of clothing.

And the property matter and hygienical aspect were shown as important factors in the feeling of wearing.

2. For outwear, a functionality and the psychological aspect were shown as important factors in a selection motive of clothing. And a exeroise and psychological aspect were shown as important factors in the feeling of wearing.
3. For pants, the funtionality was shown as an important factor in a selection motive of clothing and the exeroise aspect was shown as an important factors in the feeling of wearing. For skirt, the psychological aspect was shown as an important factor in a selection motive of clothing and feeling of wearing.
4. The hygienical aspect was shown as an important factor in a selection motive and the feeling of wearing of clothing for comfort.

## I. 서 론

의복은 인체와 환경과의 경계물로서 인체를 환경으로부터 보호하며 인체를 장식하는 역할을 한다.<sup>1)</sup>

인류가 의복을 착용한 이래 지금까지 그 목적은 여러 갈래로 걸쳐 있고 많은 변천이 있었던 것은 역사로 보아 명확하지만,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장식적인 면만이 강조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의복의 기능을 인체를 보호하는 생체적 기능과 인체를 장식하는 장식적 기능으로 볼 때<sup>2)</sup> 의복은 생리위생적 요구에 적합해야 하며, 다양한 사회적·심리적 요구를 충족시켜 주어야 쾌적한 착용감을 가질 수 있다.<sup>3)</sup>

최근 사회가 경제적으로 발달함에 따라 복식산업이 매우 발달하여 기성복이 널리 확대 보급되었다. 우리나라 기성복 산업은 1970년 대기업을 선두로 시작되어 1980년대에는 여러 기성복 업체가 등장하였으며 1990년대에 와서는 시장 세분화에 따른 다양한 기성복업체의 등장으로 의생활은 디자인에서 관리면에 이르기까지 그 범위가 크게 확대되고 변화되었다. 이러한 의생활의 변화는 개개인들로 하여금 의복에 대한 요구를 다양하게 하였으며, 이러한 다양한 요구는 의복의 종류에 따라 착용자의 성별, 연령, 직업 또는 계절에 따라 생리위생적인 면, 심리적인 면의 상대적 중요도가 각각 다르다고 사료된다. 따라서 착용자의 착의 실태를 조사하여 그 실태 분석을 통하여 의생활에 대한 가치관과 의식을 파악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본 연구에서는 의복이 정서적, 사회적 욕구를 만족시키는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는 청소년<sup>4)</sup> 층이 최근 경제적 발달로 인하여 구매력 있는 새로운 소비자층으로 부각되고 있고, 백화점마다 청소년층을 대상으로 하는 전용공간이 설치되어 있어 청소년들의 의복에 대한 선택의 폭이 더욱 넓어지고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청소년들의 착의 실태를 위생적, 경제적, 사회적 견지에서 일상 생활을 바탕으로 조사함으로써 그 실태 분석을 통하여 그들의 의복에 대한 가치관과 의식을 평가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구체적 목적은 다음과 같다.

- 1) 여자 중·고·대학생들의 통학복 실태
- 2) 여자 중·고·대학생들의 통학복에 대한 착용선택동기
  - ① 전반적인 여자 중·고·대학생들의 통학복에 대한 착용선택동기와 착용매수 증가에 따

른 차이

② 여자 중·고·대학생들의 집단별 착용선택동기와 연령 증가에 따른 차이

3) 여자 중·고·대학생들의 통학복에 대한 착용감

① 전반적인 여자 중·고·대학생들의 통학복에 대한 착용감과 착용매수 증가에 따른 차이

② 여자 중·고·대학생들의 집단별 착용감과 연령증가에 따른 차이

이와 같은 기초 연구를 통하여 복식산업의 발달을 위한 기초자료 제시와 재료적·의복구성학적·디자인적 측면에서의 효율적인 의복 설계로 신체적, 심리적 만족감을 증진시키는 의생활로 유도하는데 그 목적을 둔다.

## II. 연구방법

### 1. 연구대상

청소년의 규정은 학자에 따라 다르나 일반적으로 12세에서 21세까지를 말한다.<sup>6)</sup>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12세에서 21세까지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였다.

청소년의 초기, 중기, 후기 집단구분은 Turnlitz의 자아(주관)와 외계(객관)와의 관련 형식의 양상에 의하여 구분된 집단구분 방법을 사용하였다.<sup>6)</sup>

① 청소년 초기: 11~14세

② 청소년 중기: 14~17세

③ 청소년 후기: 17~20세

이 연령층은 우리나라 교육제도에 의하면 중·고·대학생 집단에 속하므로 여자 중·고·대학생 집단을 대상으로 하였다. 통학복은 중·고·대학생 모두 교복이 아닌 자유복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통학복으로 자유복을 선택한 동기는 통학복으로서 자유복은 편하고 활동적이며 미적 감각 및 개성을 살릴 수 있다는 유경숙<sup>7)</sup>, 유명<sup>8)</sup>, 이수희<sup>9)</sup>의 연구 결과를 참고로 하였다.

여자 중·고등학생의 경우, 통학복의 색채나 형태의 선호에서 인문계, 실업계 사이에 차이가 없다<sup>10)</sup>는 연구결과에 따라 통학복으로 자유복을 착용하는 인문계 학교를 선정하여 학년별로 임의 추출하였고, 대학생은 전공에 따라 의복에 대한 기호가 다르다고 사료되어 인문계열, 이공계열, 예능계열의 학생을 학년별로 임의 추출하여 1994년 4월 11일~4월 16일 사이에 조사하였다.

조사시간 동안의 환경기온은 낮 최고 온도가 평균 17.74℃, 습도가 평균 60.2%였다.

### 2. 연구방법

조사 방법은 위생적, 경제적, 사회적 견지에서 생활을 바탕으로 한 조사항목을 설정하여 질문지를 제작하였다. 질문지의 내용은 착용 의복 종류, 착용선택 동기, 착용감, 외의 실루엣으로 구성되며, 착용의복 종류는 예비조사를 통해 피험자로 하여금 착용하는 의복종류를 기록하게 한 것과 중·고·대학생들의 통학복을 사진 촬영한 것을 참고로 하여 결정 하였으며, 의복 종류 구분은 선혜순<sup>11)</sup>의 'Style of Fashion'을 참고하였다. 착용시의 선택동기와 착용감

에 관한 조사항목은 伊藤<sup>12)</sup>이 제작한 도구와 박우미<sup>13)</sup>의 도구를 참고로 하여 제작하였으며 의의에 관한 실루엣은 이호정<sup>14)</sup>의 복식 디자인을 참고로 하여 제작하였다. 질문지는 2번의 예비 조사를 거친 후 집단조사법으로 여자 중·고·대학생 각각 250부씩 총 750부 배부하여 회수된 것 중 불완전한 것을 제외한 총 689부(중:240부, 고:220부, 대:229부)를 자료로 통계처리 하였다.

통계처리 방법은 착용의복 종류별 실태와 착용선택동기, 착용감, 그리고 선호 실루엣과 스타일은 빈도로 산출하였고, 집단간의 연령증가에 의한 착용 선택동기와 착용감 차이 그리고 착용매수 증가에 의한 착용선택동기와 착용감 차이는  $\chi^2$  검증을 통하여 산출하였다.

### 3. 연구조사 내용

#### 1) 용어정의

- ① 착용 선택 동기: 의복을 착용할 때 의복이 갖는 여러 측면에서 선택하게 된 이유를 의미한다.
- ② 착용감: 의복을 착용했을 때,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갖는 느낌을 의미한다.
- ③ 착용순위: 착용한 의복중에서 각 의복에 대해 피부로부터 가장 안쪽에서 바깥쪽까지의 위치를 순서로 정한 것을 착용순위라 한다.
- ④ 착용매수: 피부로부터 가장 안쪽에서 바깥쪽까지 착용한 의복의 총 갯수를 의미한다. 즉 착용매수가 증가할수록 착용 순위는 높아지며 최외의가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 ⑤ 스웨터: 니트로된 의의로서 풀-오버 형태
- ⑥ 가디건: 탈라가 없으며 앞여밈의 간편한 박스 스타일
- ⑦ 재킷: 허리와 힙 사이의 기장으로 대개 앞 여밈이며 수트의 상의 형태

#### 2) 조사내용

##### ① 착용의복종류

착용의복 종류는 <표 1>에서 보면 내의류 7종류, 외의류 13종류로서 착용순위별로 상하의로 나뉘어 기록하게 하여, 그 결과를 착용순위별, 착용 방법별로 분석하였다.

##### ② 착용의복의 선택동기와 착용감

<표 1> 착용 의복의 종류

내 의 류		외 의 류	
1) 브래지어	2) 팬티	1) 티셔츠	2) 블라우스
3) 런닝셔츠	4) 쿨셋	3) 스웨터	4) 조끼
5) 속치마	6) 양말	5) 가디건	6) 점퍼
7) 스타킹		7) 재킷	8) 점퍼 스커트
		9) 원피스	10) 스커트
		11) 바지	12) 운동복
		13) 반코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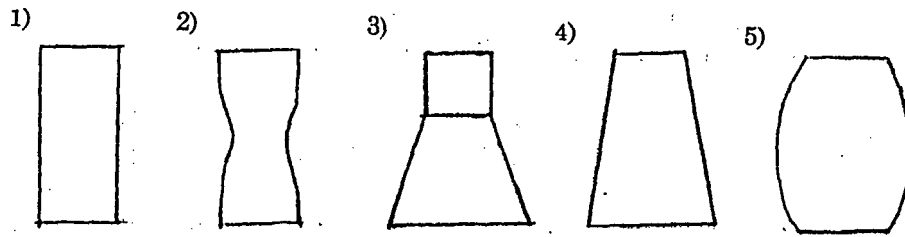
<표 2> 착용선택 동기

요 인	항 목
생 리 위 생	1) 피부감촉이 좋으므로 2) 생리위생면을 고려하여
정 용	3) 체형 보정을 위해 4) 몸에 잘 맞으므로
기 능	5) 기능적, 활동적이므로 6) 오늘의 생활목적에 맞으므로
심 리	7) 디자인이 좋으므로 8) 색, 무늬가 좋으므로 9) 유행하고 있으므로 10) 유명 메이커 상품이므로 11) 전체적으로 조화를 이루므로
관 리	12) 세탁이 용이하므로
기 타	13) 기타

<표 3> 착용감

요 인	항 목
운 동 적	1) 활동하기 편하다. 2) 전체적으로 여유가 있다.
재 료 물 성 적	3) 구김이 잘 가지 않는다. 4) 신축성이 있어 형이 흐트러지지 않는다. 5) 피부 감촉이 좋다.
심 리 적	6) 색, 무늬, 디자인이 좋다. 7) 남이 칭찬해 준다. 8) 개성적이다. 9) 유행하고 있다.
위 생 적	10) 의복형, 재질이 환경 기온에 적합하다. 11) 정전기가 일어나지 않는다. 12) 흡습성이 있다. 13) 의복 중량이 적당하다.
기 타	14) 기타

착용의복 종류에 따른 착용시의 선택동기는 <표 2>에서 보면 13개의 조사 항목을 설정하여 중요하게 생각되는 것부터 2개씩 선택하도록 하였으며, 이 13개의 조사항목은 6요인으로 분류하였다. 의복은 그 종류에 따라 선택동기가 다르고 또 같은 종류의 의복



<그림 1> 실루엣의 종류

일지라도 피부에서 떨어져 있는 정도에 따라 의복이 갖는 기능이 달라진다고 생각되어 착용의복 종류별, 착용순위별로 분석하였다.

착용의복 종류에 따른 착용감에 대해서는 <표 3>에서 보면 14개의 조사항목을 설정하여 중요하게 생각되는 것부터 2개씩 선택하도록 하였으며 이 14개의 조사항목은 5요인으로 분류하여 착용의복 종류별, 착용순위별로 분석하였다.

③ 외의의 실루엣

최외의에 해당하는 실루엣을 <그림 1>에서 보고 가장 선호하는 것을 선택하게 하여 그 결과를 분석하였다.

### Ⅲ. 분석 결과 및 고찰

#### 1. 착용의복의 종류

##### 1) 착용순위별

###### (1) 내의

내의는 의복내의 온도와 습도를 조절하는 역할을 하므로 착용하지 않을 경우 불편감을 느낄 수 있으므로 내의류가 위생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sup>15)</sup>

<표 4>에서 보면, 여자 중·고·대학생들의 브래지어, 팬티, 런닝셔츠의 착용율은 매우 높게 나타났으며 반면 콜셋의 착용율은 매우 낮게 나타났다. 집단별로 비교해 보면 <그림 2>와 같이 연령이 증가할수록 위생적 역할을 하는 런닝셔츠의 착용율은 낮아지고 체형 보정의 역할을 하는 콜셋의 착용율은 점점 높아졌다. 이는 연령이 증가할수록 몸매에 대한 미적 관심이 점점 높아지는 것으로 사료된다.

###### (2) 외의

<표 5>에서 보면 여자 중·고·대학생들은 통학복으로서 상의는 주로 블라우스와 티셔츠, 그리고 최외의로서는 점퍼, 가디건, 재킷을 착용하였다. 블라우스보다는 티셔츠의 착용율이 높으며, 최외의 가디건과 재킷이 비슷한 비율로 착용율이 높고 다음은 점퍼순이다.

하의는 스커트보다는 바지의 착용율이 높아, 이로서 여자 중·고·대학생들의 통학복은 티셔츠+가디건 또는 재킷+바지 스타일이 가장 많이 착용되고 있으며, 다음은 티셔츠+점퍼+바지 스타일이었다. 이는 청소년들은 티셔츠+점퍼+바지 스타일을 선호한다는 양승진<sup>16)</sup>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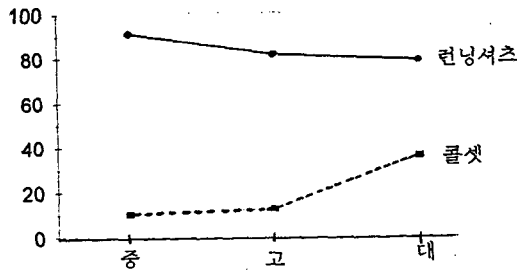
<표 4> 내의의 착용 실태

단위(%), n=689

내의종류		집 단				차이 검증	
		평 균	중	고	대		
상 의	브래지어	98.8	96.5	100	100	$\chi^2 = 0.3436$	$p \geq 0.05$
	런닝셔츠	83.7	91.2	81.4	78.5	$\chi^2 = 5.4014$	$p \leq 0.05$
하 의	팬 티	100	100	100	100	$\chi^2 = 0.8737$	$p \geq 0.05$
	<sup>a</sup> 콜 셋	19.4	10.2	12.3	35.8	$\chi^2 = 46.8507$	$p \leq 0.05$
	<sup>b</sup> 속 치 마	68.0	77.4	79.2	47.3	$\chi^2 = 3.7692$	$p \geq 0.05$

$$a \text{ 콜셋의 착용 빈도} = \frac{\text{콜셋 착용자수}}{\text{스커트, 바지 착용자수}} \times 100$$

$$b \text{ 속치마의 착용 빈도} = \frac{\text{속치마 착용자수}}{\text{스커트 착용자수}} \times 100$$



<그림 2> 런닝셔츠와 콜셋의 착용 실태

증가할수록 점퍼의 착용율이 낮아지고 재킷의 착용율은 높아졌다. 이로서 연령이 증가할수록 의복을 통한 자기표현 방법이 점차 다양해져 가고 있으며 통학복에 대해 Formal한 감각이 점차 많이 수용되어감을 알 수 있다.

그외 조끼의 경우, 1994년은 조끼가 유행한 해로서 많은 학생들의 조끼를 착용하였다. 집단별 착용실태를 보면 중학생의 착용율이 24.3%로 가장 높고 다음은 대학생 12.5%, 고등학생 6.2% 순으로 나타났다. 이로서 동조율은 중학생 집단이 가장 높다고 사료되며 이는 7~9세, 11~13세, 15~17세, 19~20세 4집단중 11~13세 집단의 동조율이 가장 높다는 코스타노와 쇼우의 연구결과<sup>18)</sup>와 일치하게 나타났다.

양말류는 중, 고등학생은 주로 양말, 대학생은 스타킹을 착용하였다.

## 2) 착용방법 및 착용량

<표 1>에 나타난 의복을 착용순위별로 기록하게 하여 분류해 본 결과 여자 중·고·대학생

연구 결과와, 여고생들은 외출시 즐겨 입는 옷으로 바지 차림을 선호한다는 정은희<sup>17)</sup>의 연구결과와 비슷하게 나타났다.

집단별로 비교해 보면 여자 중·고·대학생 모두 통학복으로서 블라우스 보다는 티셔츠를 선호하나, 연령이 증가할수록 블라우스의 착용율이 높아졌다. 또한 최의의로 가장 많이 착용되는 의복은 재킷, 가디건, 점퍼로서 중학생은 점퍼, 고등학생은 가디건, 대학생은 재킷의 착용율이 가장 높으며, 연령이

<표 5> 의의의 착용 실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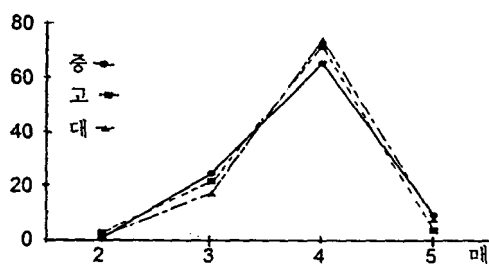
단위(%), m=689

의복종류		집 단				차이 검증	
		평 균	중	고	대		
상 의	블라우스	16.4	13.0	8.0	28.3	$\chi^2 = 31.0000$	$p \leq 0.05$
	티 셔 츠	81.2	86.8	89.8	67.1	$\chi^2 = 8.7406$	$p \leq 0.05$
	기 타	2.4	0.2	2.2	4.6		
의	점 페	16.0	23.7	17.0	7.4	$\chi^2 = 21.6216$	$p \leq 0.05$
	가 디 건	29.3	21.7	36.2	30.0	$\chi^2 = 5.9403$	$p \leq 0.05$
	재 킷	28.7	20.0	20.6	45.4	$\chi^2 = 33.6345$	$p \leq 0.05$
	기 타	26.0	34.6	26.2	17.2		
하 의	스 커 트	5.5	7.0	2.8	7.3	$\chi^2 = 7.3846$	$p \leq 0.05$
	바 지	94.5	93.0	97.8	92.7	$\chi^2 = 0.2985$	$p \geq 0.05$
의 양 말 류	스 타 킹	19.9	2.0	2.8	55.0	$\chi^2 = 218.7111$	$p \leq 0.05$
	양 말	80.1	98.0	97.2	45.0	$\chi^2 = 55.1516$	$p \leq 0.05$

<표 6> 착용방법

단위(종류), n=689

	중	고	대	차이검증
상 의	28	31	33	$\chi^2 = 0.4868$
하 의	8	7	9	$p \geq 0.05$
Total	36	38	42	



<그림 3> 착용량

모두 상의는 44종류, 하의는 11종류의 착용방법이 산출되었다. <표 6>에서 보면 대학생이 가장 많은 착용 방법을 사용하여 의복을 통한 개성표현욕구<sup>19)</sup>가 가장 다양함을 알 수 있다. 착용량은 <그림 3>에서 보면 여자 중·고·대학생 모두 4매를 가장 많이 착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2. 착용선택동기

### 1) 착용의복 종류별

<표 7>에서 보면 여자 중·고·대학생들의 통학복에 대한 선택 동기는 상의의 가장 안쪽에 착용하는 브래지어는 체형보정을 위한 정용면이, 런닝셔츠와 속치마는 생리위생면이 가장 높았다. 외의인 티셔츠는 기능면이, 블라



<표 7> 착용선택동기

단위(%), n=689

요인	생리위생				정용				기능				심리				관리				기타			
	평균	중	고	대	평균	중	고	대	평균	중	고	대	평균	중	고	대	평균	중	고	대	평균	중	고	대
브래지어	34.9	40.8	30.3	33.6	46.0	42.0	47.8	48.1	12.2	9.0	15.7	12.0	4.5	4.5	3.9	5.0	0.7	0.4	1.1	0.7	1.7	3.3	1.2	0.7
런닝셔츠	75.4	66.0	76.4	83.8	7.5	12.7	6.7	3.0	9.8	12.3	10.1	7.0	3.1	3.6	1.4	4.4	1.9	2.3	2.5	0.9	1.7	2.7	1.6	0.9
속치마	42.2	37.7	44.1	47.8	17.2	23.1	15.5	13.1	16.9	14.7	17.8	18.3	15.0	12.8	16.3	16.0	1.9	2.6	2.4	0.7	5.6	9.1	3.9	3.9
티셔츠	3.5	4.1	2.7	3.7	6.6	9.6	6.3	3.9	47.3	41.0	48.0	53.0	49.5	38.8	39.6	35.6	4.5	6.3	3.4	3.7	0.1	0.2	0	0
블라우스	8.9	8.6	11.2	6.8	4.8	6.4	6.4	1.5	7.9	6.0	11.8	5.9	75.9	73.7	68.8	85.3	0.6	1.0	0.9	0	1.9	4.3	0.9	0.4
점퍼	1.5	1.8	1.8	0.9	4.9	7.7	3.6	3.3	42.6	32.4	42.8	52.6	47.3	50.7	50.2	41.1	2.6	5.3	0.9	1.5	1.2	2.1	0.7	0.7
조끼	1.5	1.3	2.0	1.1	6.1	7.9	6.1	4.3	11.2	8.3	13.5	11.8	78.5	79.3	74.7	81.5	1.6	2.3	1.8	0.7	1.0	0.7	1.6	0.7
스웨터	2.9	2.8	3.2	2.8	5.6	8.3	4.1	4.4	30.0	23.6	26.8	39.7	54.2	54.7	59.3	48.7	4.1	5.3	3.6	3.5	3.0	5.3	2.9	0.9
재킷	0.4	0.7	0.5	0	5.5	6.0	3.5	7.1	21.5	21.0	25.5	18.1	68.0	64.2	66.9	72.9	2.6	4.1	2.3	1.3	1.6	3.3	1.2	0.4
가디건	1.7	2.6	0.7	1.7	5.4	8.6	3.2	4.3	36.9	22.4	42.3	45.9	50.3	57.1	48.5	45.2	3.9	5.9	3.2	2.6	1.9	3.4	2.0	0.2
점퍼스커트	5.4	4.9	8.4	2.8	9.1	8.5	11.8	6.9	12.2	12.2	15.9	8.6	66.5	63.2	56.6	79.8	1.1	1.5	1.1	0.7	5.6	9.8	6.1	0.9
원피스	4.2	3.8	7.5	1.3	8.4	9.9	8.6	6.7	8.9	6.9	15.3	4.5	73.1	70.7	63.0	85.5	1.2	2.3	1.1	0.2	4.2	6.4	4.5	1.7
운동복	11.0	7.2	14.5	11.4	9.7	10.4	10.2	8.5	54.1	56.1	45.4	60.7	11.5	10.9	12.2	11.3	7.0	10.5	5.9	4.6	2.7	5.0	1.8	1.3
반코트	1.7	1.7	2.7	0.8	4.6	5.6	4.5	3.7	17.5	16.3	19.1	17.0	71.3	69.4	67.8	76.6	1.6	2.0	2.5	0.4	4.1	5.0	3.4	1.3
팬티	56.8	60.0	55.0	55.3	10.3	10.5	10.2	10.2	10.5	9.8	8.9	12.7	18.2	17.6	18.3	18.8	1.2	0.5	2.0	1.2	2.2	1.6	3.3	1.8
바지	5.9	10.2	2.1	5.4	16.3	15.3	17.1	16.4	43.9	42.5	42.0	47.2	28.9	27.9	27.5	31.3	2.2	1.4	3.0	2.2	2.8	2.7	5.0	0.8
스커트	5.7	6.1	5.5	5.5	9.5	10.0	9.5	9.1	30.0	27.7	29.3	32.9	54.9	49.5	53.0	51.3	1.7	2.6	1.8	0.7	1.8	4.1	0.9	0.5
콜셋	18.0	18.0	23.1	13.0	56.1	56.7	57.8	53.7	14.6	15.8	10.2	17.9	8.4	7.9	5.5	11.8	1.3	0.8	1.1	2.0	1.6	0.8	2.3	1.6
양말	38.5	37.1	38.3	40.2	7.8	8.3	7.3	7.9	32.5	32.7	35.1	29.7	15.2	14.2	14.6	16.9	3.4	4.0	2.9	3.2	2.5	3.7	1.8	2.1
스타킹	44.9	46.0	48.6	40.0	5.6	6.2	8.4	2.3	31.9	30.7	29.0	36.0	16.2	15.7	12.0	20.9	0.9	0.5	2.0	0.3	0.4	0.9	0	0.5

우스는 심리면이 가장 높았으며 상의의 가장 바깥쪽의 착용하는 점퍼, 재킷, 가디건은 심리면이, 운동복은 기능면이 가장 높았다. 그의 조끼, 스웨터, 원피스, 그리고 반코트 등도 심리면이 가장 높았다. 하의의 가장 안쪽에 착용하는 팬티는 생리위생면이, 콜셋은 체형보정을 위한 정용면이 가장 높았으며 가장 바깥쪽에 착용하는 바지는 기능면이, 스커트는 심리면이 가장 높았다. 그의 양말류는 생리위생면이 가장 높았다. 그러나 관리면은 상하내외의류 모두 낮게 나타났는데, 관리면이 품질요구도로서 높은 항목을 차지한다는 伊藤의 연구결과<sup>20)</sup>를 볼 때 여자 중·고·대학생들이 의복의 품질 요구에 대한 의식은 낮은 것으로 사료된다. 요인을 중심

으로 분석하면, 생리위생면을 중요시하는 의복은 런닝셔츠, 속치마, 팬티 등의 내의이며 정용면을 중요시하는 의복은 브래지어와 콤파트 형태로 체형을 보정하는 역할을 하는 의복이며, 기능면을 중요시하는 의복은 티셔츠, 바지, 운동복 등의 활동성 있는 의복이다. 심리면을 중요시하는 의복은 블라우스, 점퍼, 재킷, 스웨터, 원피스, 조끼, 반코트, 스커트 등의 외의류이다. 이로서 내의는 생리위생면, 정용면, 외의는 심리면, 기능면을 중요시함을 알 수 있다. 청소년들이 외의에 대한 선택동기에서 심리면, 기능면을 중요시한다는 것은 청소년들은 활동적이면서 미적감각이 있는 통학복을 선호한다는 유경숙<sup>21)</sup>의 연구 결과와 일치하게 나타났다. 그리고 내의에서 생리위생면을 중요시하게 되는 것은 내의가 위생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의식과, 외의에서 심리면을 중요시하게 되는 것은 패션의 동기인 승인받고자 하는 욕구<sup>22)</sup>가 높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집단별로 분석하면 여자 중·고·대학생 모두 비슷한 경향을 나타냈으나 대학생은 점퍼와 가디건에 있어서 중·고등학생과 달리 심리면보다는 기능면이 높게 나타났다. 이는 중·고등학생과 달리 대학생이 의복의 용도에 대한 의식과 가치관에 변화가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chi^2$  검증을 통하여 여자 중·고·대학생 집단간의 차이를 살펴보면 연령이 증가할수록 <표 8>, <표 9>에서 보면 내의인 런닝셔츠와 속치마는 생리위생면이 증가하였으며, <표 10>, <표 11>, <표 12>에서 보면 외의인 티셔츠와 스웨터는 기능면, 블라우스는 심리면이 증가하였으며, <표 13>, <표 14>, <표 15>에서 보면 최외의인 점퍼와 가디건은 기능면이, 재킷은 심리면이 증가하였다.

요인을 중심으로 분석하면 연령이 증가할수록 생리위생면의 증가는 런닝셔츠, 속치마 등의 내의에서, 기능면의 증가는 티셔츠, 스웨터, 가디건, 점퍼 등의 활동성 있는 외의에서, 심리면의 증가는 최외의인 재킷에서 나타났다. 즉 연령이 증가할수록 신체보호, 기후조절 등의 생리적 입장에 있는 내의는 생리 위생면의 증가를, 활동성 있는 의복은 기능면의 증가를, 장식, 위엄 등의 사회적 입장에 있는 외의는 심리면의 증가를 나타내었다.

<표 8> 런닝셔츠의 착용선택동기 차이 검증 단위(%), n=689

요인 집단	생리위생	정 용	기 능	심 리	Total	$\chi^2=49.986$ $P \leq 0.05$
중	69.5	13.4	12.9	4.2	100	
고	79.7	7.0	10.5	2.8	100	
대	85.3	3.1	7.1	4.5	100	

<표 9> 속치마의 착용선택동기 차이 검증 단위(%), n=689

요인 집단	생리위생	정 용	기 능	심 리	Total	$\chi^2=28.084$ $P \leq 0.05$
중	42.6	26.2	16.6	14.6	100	
고	47.1	16.5	19.0	17.4	100	
대	50.6	13.7	19.2	16.5	100	

<표 10> 티셔츠의 착용선택동기 차이 검증

단위(%), n=689

요인 집단	생리위생	정 용	기 능	심 리	Total	$\chi^2=12.175$ $P \leq 0.05$
중	4.4	10.3	43.9	41.4	100	
고	2.8	6.5	49.7	41.0	100	
대	3.8	4.0	55.0	37.2	100	

<표 11> 블라우스의 착용선택동기 차이 검증

단위(%), n=689

요인 집단	생리위생	정 용	기 능	심 리	Total	$\chi^2=25.713$ $P \leq 0.05$
중	9.1	6.8	6.3	77.8	100	
고	11.4	6.6	2.15	69.9	100	
대	6.8	1.5	5.9	85.8	100	

<표 12> 스웨터의 착용선택동기 차이 검증

단위(%), n=689

요인 집단	생리위생	정 용	기 능	심 리	Total	$\chi^2=34.589$ $P \leq 0.05$
중	3.1	9.3	26.4	61.2	100	
고	3.4	4.4	28.7	63.5	100	
대	2.9	4.6	41.6	50.9	100	

<표 13> 점퍼의 착용선택동기 차이 검증

단위(%), n=689

요인 집단	생리위생	정 용	기 능	심 리	Total	$\chi^2=43.499$ $P \leq 0.05$
중	1.8	7.8	32.8	57.6	100	
고	1.8	3.7	43.5	51.0	100	
대	0.9	3.4	53.8	41.9	100	

<표 14> 가디건의 착용선택동기 차이 검증

단위(%), n=689

요인 집단	생리위생	정 용	기 능	심 리	Total	$\chi^2=69.219$ $P \leq 0.05$
중	2.9	9.5	24.7	62.9	100	
고	0.7	3.4	44.6	51.3	100	
대	1.7	4.4	47.2	46.7	100	

<표 15> 재킷의 착용선택동기 차이 검증

단위(%), n=689

요인 집단	생리위생	정 용	기 능	심 리	Total	$\chi^2=14.969$ $P \leq 0.05$
중	0.8	6.5	22.7	70.0	100	
고	0.5	3.6	26.4	69.5	100	
대	0	7.2	18.4	74.4	100	

<표 16> 블라우스의 착용 순위별 착용선택동기 차이 검증

단위(%), n=689

요인 착용순위	생리위생	정 용	기 능	심 리	Total	$\chi^2=2.115$ $P \leq 0.05$
2매	11.8	3.9	3.9	80.4	100	
3매	4.7	1.8	13.4	80.1	100	

이로서 여자 중·고·대학생들은 의복의 용도와 환경에 맞는 의복을 선택하며 연령이 증가할수록 의복의 용도와 환경에 적합한, 올바른 의생활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2) 착용 순위별

착용순위가 증가함에 따라 여자 중·고·대학생들의 착용선택동기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착용빈도수가 많은 의외류를 중심으로 알아보았다. 착용순위가 높을수록 최외의가 될 가능성이 높음을 나타낸다. <표 16>에 보면 블라우스의 경우, 착용매수가 증가할수록 기능면이 증가하고 생리위생면이 감소하였다. 이로서 통학복으로서 블라우스가 최외의가 될 가능성이 높을 때, 생리적인 면보다는 활동성이 강조되는 것이라고 사료된다. 이는 외의용일수록 기능면이 증가하였다는 박우미<sup>13)</sup>의 연구결과와 일치하게 나타났다.

그외 티셔츠, 스웨터, 조끼에서는 유의차가 없게 나타났다. 집단별로 분석하면 블라우스의 경우, 중학생에서는 유의차가 없게 나타났으나 고등학생, 대학생에서는 유의차가 있게 나타나 의복의 용도에 대한 의식은 연령이 증가할수록 증가됨을 알 수 있다.

### 3. 착용감

#### 1) 의복 종류별

<표 17>에서 보면 여자 중·고·대학생들의 통학복에 대한 착용감은 상의의 경우, 정용면을 중요시하는 브래지어와 생리위생면을 중요시하는 속치마는 재료물성적 착용감이 가장 높으며, 기능면을 중요시하는 티셔츠와 심리면을 중요시하는 블라우스, 점퍼, 가디건, 재킷은 심리적 착용감이 가장 높았다. 기능면을 중요시하는 운동복은 운동적 착용감이 가장 높았으며 그외 심리면을 중요시하는 조끼, 스웨터, 원피스, 반코트 등도 심리적 착용감이 가장 높았다. 하의의 경우, 생리위생면을 중요시하는 팬티는 위생적 착용감이, 정용면을 중시하는 콜셋은 운동적 착용감이 가장 높았으며, 기능면을 중요시하는 바지는 운동적 착용감이, 심리면을

<표 17> 착용감

단위(%), n=689

요 인	운동적				재료물성적				심리적				위생적				기 타				
	평균	중	고	대	평균	중	고	대	평균	중	고	대	평균	중	고	대	평균	중	고	대	
집단 의복종류																					
브래지어	35.8	34.9	37.0	35.5	49.0	50.3	48.0	48.7	4.1	2.4	5.0	5.0	8.5	9.4	7.0	9.2	2.7	3.4	3.1	1.6	
런닝셔츠	23.4	27.1	22.0	21.0	40.3	37.5	42.4	41.0	5.0	1.6	1.7	11.6	30.5	32.5	32.5	26.4	1.6	1.4	1.3	0.2	
속 치 마	20.4	24.1	18.9	18.3	47.0	44.7	46.3	49.9	11.2	9.5	14.0	10.1	17.8	16.1	17.6	19.7	3.6	5.7	3.2	2.0	
티 셔 츠	35.8	35.3	37.3	34.7	15.3	13.5	15.7	16.6	40.7	41.4	39.3	41.3	8.0	9.4	7.8	6.9	0.27	0.4	0	0.4	
블라 우 스	7.6	6.0	11.8	5.0	23.7	27.2	23.2	21.2	60.2	57.5	55.5	65.5	7.6	7.3	7.9	7.6	1.4	2.0	1.6	0.7	
점 퍼	30.1	27.1	27.5	35.8	5.9	6.1	5.4	6.2	48.5	51.7	49.7	44.1	14.6	13.5	16.9	13.5	0.77	1.6	0.5	0.2	
조 끼	9.0	9.4	8.7	8.9	5.1	4.6	6.3	4.5	77.5	75.5	75.2	81.8	7.3	8.2	8.4	5.3	1.3	2.2	1.4	0.4	
스 웨 터	25.7	19.2	26.8	31.0	15.7	16.7	14.9	15.4	39.8	42.6	41.6	35.1	21.3	15.7	15.0	17.4	2.4	4.7	1.6	0.9	
재 킷	16.6	14.4	21.5	13.9	6.3	6.8	6.5	5.5	63.5	64.9	59.2	66.4	11.7	10.8	11.3	13.0	1.9	3.1	1.6	1.1	
가 디 건	29.8	21.9	29.2	38.4	9.1	8.7	10.0	8.7	44.2	51.0	44.6	37.1	15.3	15.4	14.9	14.8	1.8	3.1	1.3	0.9	
점 퍼 스 커 트	10.6	8.6	15.4	7.8	9.5	10.0	9.1	9.5	65.5	66.1	56.3	74.1	11.2	10.6	15.0	7.9	3.2	4.7	4.0	0.9	
원 피 스	8.0	7.9	11.9	4.2	9.5	9.8	11.2	7.4	67.7	64.1	60.3	78.6	10.7	14.3	13.6	4.3	3.2	4.9	2.9	1.7	
운 동 복	47.4	44.7	50.0	47.4	14.2	14.0	12.3	16.2	6.4	7.5	7.3	4.4	29.8	17.8	29.3	31.7	1.5	2.9	1.1	0.4	
반 코 트	12.9	14.1	15.0	9.6	5.3	8.2	4.2	3.6	49.6	47.3	47.8	5.36	28.7	24.5	29.9	31.7	3.3	5.7	3.2	1.1	
팬 티	21.9	26.6	22.1	16.9	30.1	27.2	27.2	35.8	4.2	4.1	4.5	4.1	40.8	39.4	43.6	39.5	2.6	2.8	1.9	13.1	
바 지	47.7	49.3	50.1	43.6	6.3	6.7	2.9	9.2	26.9	22.4	27.5	30.7	15.9	17.6	18.0	12.0	3.2	4.0	1.5	4.2	
스 커 트	23.0	17.2	26.6	25.4	13.9	18.2	14.4	9.0	46.4	46.7	42.3	50.1	14.3	16.2	14.7	12.0	2.4	1.7	2.0	3.5	
콜 섯	58.1	73.6	51.6	49.4	10.7	7.9	12.4	11.7	4.3	4.3	3.0	5.5	13.6	11.2	11.8	17.7	1.7	1.7	20.	1.3	
양 말	30.9	31.6	33.9	27.2	15.1	13.7	11.9	19.6	25.1	24.6	27.3	23.5	24.8	27.4	23.5	23.5	2.2	2.3	2.0	2.3	
스타 킹	35.9	38.4	32.3	37.1	40.1	36.0	32.2	52.0	13.2	13.7	14.1	11.9	7.4	7.5	5.4	9.4	3.1	3.1	4.2	1.9	

중요시하는 스커트는 심리적 착용감이 가장 높았다. 그의 생리위생면을 중요시하는 양말은 운동적 착용감이, 스타킹은 재료물성적 착용감이 가장 높았다. 요인을 중심으로 분석하면, 재료물성적 착용감을 중요시하는 의복은 브래지어, 런닝셔츠, 속치마 등의 내의이며 위생적 착용감을 중요시하는 의복은 피부 가장 안쪽에 착용하는 팬티이다. 운동적 착용감을 중요시하는 의복은 콜셋, 바지, 운동복 등의 활동성 있는 의의이며, 심리적 착용감을 중요시하는 의복은 티셔츠, 블라우스, 재킷, 스커트, 가디건, 스웨터, 원피스, 반코트 등의 외의이다. 이로서 내의는 재료물성적 착용감, 위생적 착용감을 중요시 여기며 외의는 심리적 착용감, 운동적 착용감을 중요시 함을 알 수 있다. 재료물성적 착용감과 위생적 착용감을 중요시하는 의복이 주로 내의인 것은 피부 가장 안쪽에 접촉하는 의복으로서 쾌적감을 느끼기 위해서는 소재 및 위

생적 기능의 중요성을 인식하기 때문이며 심리적 착용감을 중요시 하는 의복이 주로 의의인 것은 타인으로부터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 때문이다. 운동적 착용감을 중요시하는 의복이 주로 하의인 것은 상의보다 하의가 활동성을 중요시 하기 때문이며 실용적인 착용방법이라 사료된다.

집단별로 분석하면 중·고·대학생 모두 비슷한 경향을 나타냈으나 대학생은 가디건의 경우 중·고등학생의 경향과 달리 심리적 착용감보다는 운동적 착용감이 높게 나타났다. 이는 여자 중·고·대학생의 통학복에 대한 착용감은 서로 비슷한 경향을 갖고 있으나 대학생은 중·고등학생보다는 의복 용도에 대한 의식과 가치관에 변화가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chi^2$  검증을 통하여 여자 중·고·대학생 집단간의 차이를 살펴보면 연령이 증가할수록 <표 18>, <표 19>에서 보면 런닝셔츠는 재료물성적 착용감이, 속치마는 재료물성적 착용감과 위생적 착용감 증가하였다. <표 20>, <표 21>, <표 22>, <표 23>에서 보면 블라우스는 심리적 착용감이, 점퍼와 스웨터, 가디건은 운동적 착용감이 증가하였다. 요인을 중심으로 분석하면, 재료물성적 착용감과 위생적 착용감의 증가는 런닝셔츠, 속치마 등의 내의에서, 운동적 착용감의 증가는 점퍼, 스웨터, 가디건 등의 활동성 있는 외의에서, 심리적 착용감의 증가는 블라우스에서 나타났다.

<표 18> 런닝셔츠의 착용감 차이 검증 단위(%), n=689

요인 집단	운동적	재료물성적	심리적	위생적	Total	$\chi^2=15.100$ $P \leq 0.05$
중	27.5	38.0	1.6	32.9	100	
고	22.3	43.0	1.7	33.0	100	
대	21.0	41.0	11.6	26.4	100	

<표 19> 속치마의 착용감 차이 검증 단위(%), n=689

요인 집단	운동적	재료물성적	심리적	위생적	Total	$\chi^2=14.821$ $P \leq 0.05$
중	25.6	47.4	10.1	16.9	100	
고	19.5	47.8	14.5	18.2	100	
대	18.7	50.9	10.3	20.1	100	

<표 20> 블라우스의 착용감 차이 검증 단위(%), n=689

요인 집단	운동적	재료물성적	심리적	위생적	Total	$\chi^2=22.780$ $P \leq 0.05$
중	6.1	27.7	58.6	7.6	100	
고	12.0	23.6	56.4	8.0	100	
대	5.0	21.2	66.2	7.6	100	

<표 21> 점퍼의 착용감 차이 검증

단위(%), n=689

요인 집단	운동적	재료물성적	심리적	위생적	Total	$\chi^2=12.867$ $P \leq 0.05$
중	27.5	6.2	52.5	13.7	100	
고	27.5	5.4	49.7	16.9	100	
대	35.8	6.2	44.1	13.5	100	

<표 22> 스웨터의 착용감 차이 검증

단위(%), n=689

요인 집단	운동적	재료물성적	심리적	위생적	Total	$\chi^2=20.170$ $P \leq 0.05$
중	20.1	17.5	44.7	17.7	100	
고	27.4	15.1	42.2	15.3	100	
대	31.0	15.5	35.4	19.7	100	

<표 23> 가디건의 착용감 차이 검증

단위(%), n=689

요인 집단	운동적	재료물성적	심리적	위생적	Total	$\chi^2=36.601$ $P \leq 0.05$
중	22.6	9.1	52.6	15.7	100	
고	29.7	10.2	45.2	14.9	100	
대	38.7	8.8	37.4	15.1	100	

즉 연령이 증가할수록 내의는 소재적 측면과 위생적인 면, 외의는 활동적인 면과 미적인 면을 중요시함을 알 수 있다. 이로서 연령이 증가할수록 의복 용도의 적합성이 높게 기능적 측면에서의 생활 활동면, 미적 측면에서의 생활 내적인 면을 중요시하며 의복을 착용하여 착용자와 의복과의 조화로운 의생활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2) 착용순위별

착용순위가 증가함에 따라 여자 중·고·대학생들의 착용감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착용빈도수가 많은 의외류를 중심으로 알아보았다. 그러나 티셔츠, 블라우스, 조끼, 스웨터 모두 착용매수 증가에 따른 요인변화에 대한  $\chi^2$  검증 결과 모두 유의차가 없게 나타났다. 즉 여자 중·고·대학생들의 의생활에 있어서 의복별로 착용매수 증가에 따른 착용감은 변화가 없음을 나타낸다. 이것은 착용매수가 증가함에 따라 티셔츠는 심리적 착용감이, 원피스는 재료물성적 착용감이 증가하였다는 박우미<sup>13)</sup>의 연구결과와 다르게 나타난 것으로서 의생활이 발전할수록 의외와 최외의의 기능에 대한 착용감의 요인 변화가 적게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표 24> 스타일

단위(%), n=689

집 단 \ 스타일	꼭 맞는 형	알맞게 맞는 형	헐렁한 형	Total
중	4.5	52.5	43.0	100
고	5.5	43.3	51.2	100
대	7.4	63.3	29.3	100

<표 25> 실루엣

단위(%), n=689

집 단 \ 실루엣						Total
중	33.6	36.5	24.2	3.3	2.4	100
고	53.7	25.5	13.6	4.9	2.3	100
대	36.2	40.2	15.7	7.9	0	100

#### 4. 선호 스타일과 실루엣

<표 24>에서 보면 여자 중·고·대학생들의 가장 선호하는 스타일은 알맞게 맞는 스타일이며 집단별로 살펴보면 중학생은 알맞게 맞는 스타일, 고등학생은 헐렁한 스타일, 대학생은 알맞게 맞는 스타일을 가장 선호하였다. 고등학생의 헐렁한 스타일 선호 경향은 요즘 청소년들의 헐렁한 스타일이 유행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고등학생은 그들의 불안한 심리상태를 의복을 통하여 안정을 꾀하고자 한다는 유명<sup>20)</sup>의 연구결과나 고교 혹은 대학시절처럼 눈에 띄는 의복을 요구하는 시기도 없다는 Hurlock<sup>21)</sup>의 연구결과를 통해서 청소년들에게 있어서 의복은 정서적·사회적 욕구를 만족시키는 중요한 요인이라고 사료된다.

<표 25>에서 보면 여자 중·고·대학생들의 통학복으로서 가장 선호하는 실루엣은 박스형이며 역삼각형이나 계란형 실루엣의 선호도는 매우 낮았다. 집단별로 살펴보면 중학생은 바디라인형과 박스형이 비슷하게 높게 선호되었고 고등학생은 박스형, 대학생은 바디라인형과 박스형이 비슷하게 높게 선호되었다.

### I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여자 중·고·대학생들의 통학복의 대한 착의 실태 조사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여자 중·고·대학생들의 가장 선호하는 통학복은 티셔츠+가디건 또는 재킷+바지 스타일이며 집단별로는 중학생은 티셔츠+점퍼+바지, 고등학생은 티셔츠+가디건+바지, 대학생은 티셔츠+재킷+바지 스타일로서, 공통적으로 티셔츠와 바지를 통학복으로 가장 선호하였다. 내의류는 런닝셔츠의 착용율은 높으나 콜셋의 착용율은 낮으며 연령이 증가할수록 런닝셔츠의 착용율은 낮아지고 콜셋의 착용율은 높아졌다.



2. 의복의 착용이 신체에 부착된 내의일수록, 착용선택 동기는 생리위생면, 정용면이 높고 착용감은 재료물성적, 위생적 착용감이 높다. 그리고 착용자의 연령이 증가할수록 착용선택 동기는 생리위생면이 증가되었고 착용감은 재료물성적, 위생적 착용감이 증가되었다.
3. 외의류의 착용선택동기는 심리면과 기능면이 높고, 착용감은 심리적, 운동적 착용감이 높았다. 그리고 연령이 증가할수록 착용선택 동기는 심리면과 기능면이 증가하였고 착용감은 심리적, 운동적 착용감이 증가하였다. 또한 착용매수가 증가할수록 착용선택 동기는 블라우스에서 기능면의 증가를 나타내었고 착용감은 착용 매수 증감에 따른 변화는 별로 나타나지 않았다.
4. 하의류는 상의에 비해 활동성이 많은 의복으로서 바지 종류의 착용선택 동기는 기능면이 높고 착용감은 운동적 착용감이 높았다. 스커트 종류의 착용선택 동기는 심리면이 높으며 착용감은 심리적 착용감이 높았다.
5. 최의의로서 가장 선호하는 실루엣은 박스형으로 중학생은 바디라인형과 박스형, 고등학생은 박스형, 대학생은 바디라인 형과 박스형을 가장 선호하였다. 가장 선호하는 스타일은 알맞게 맞는 형으로 중학생은 알맞게 맞는 형, 고등학생은 헐렁한 형, 대학생은 알맞게 맞는 형을 가장 선호하였다.

이로서 여자 중·고·대학생의 의생활은 실용적인 착의 방법을 추구하며 연령이 증가할수록 의복의 용도와 환경에 적합한 의생활을 추구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상의 결과를 기초로 하여 청소년기의 의생활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전개되어 나가길 바라며 주니어 의류를 관계하는 의류산업 관계자들에게 광고전략을 기획하거나 상품을 기획, 판매할 때 유용한 자료가 되었으면 한다.

또한 앞으로의 연구과제로서 남녀별, 직업별, 지역별, 계절별 등의 폭넓은 조사가 필요하며 여러 측면에서의 객관적인 연구가 이루어져야겠다.

## 참고문헌

1. 마틸린혼, 루이스 구렐, 이화연, 민동원, 손세영 옮김, *The Second Skin*, 까치, p. 13, 1988
2. 申中道一, 衣服의着心地, 「섬유제품 소비자과학회지」, 15, p.256-265, 1974
3. Roach-Higgins, *Dress Adornment and Social Order*, John Wileysons, Inc., p.6, 1965
4. Kefgen, M. and Touchie-Specht, P. *Individuality in Clothing Selection and Personal Appearance*(2nd ed) N. Y. ; Macmillan publishing Co., Inc., p.49, 1976
5. 조금호, 현대 한국 청년의 정체의식, 청년연구 제 2집,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p.76.
6. 정연석, 신 청년 심리학, 대왕사, p.55, 1992
7. 유경숙, 여고생 교복 디자인 선호에 관한 연구, 한국의류학회지, Vol. 15, No. 3, p.266, 1991
8. 유명한 통학복 유형에 따른 의복행동에 관한 비교연구, 대한가정학회지 제 30 권, 1호, p. 19, 1992

9. 이수희, 여고생 교복과 자유복에 대한 태도 연구, 서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p.67, 1983
10. 김경애, 여고생의 통학복에 관한 조사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p.67, 1983.
11. 신혜순, Style of Fashion, 국제패션문화사, 1989
12. 伊藤五子 外 9人. 衣生活(における着裝の實態, 第一報), 「섬유제품소비과학회지」, 23, p. 153-158, 1982
13. 박우미, 남녀고등학생의 의생활 실태에 관한 조사 연구, 한국의류학회지 Vol. 8, No. 1, 77, 1984
14. 이호정, 복식디자인, 교학 연구사, 1994
15. 柳許子, 婦人用下着—最近の着用動向요소と素材—
16. 양승진, 고등학생의 의복에 대한 태도와 욕구 및 가정의 가치지향성과의 관계 연구, 한국의류학회지 Vol. 10, No. 1, p.33, 1986.
17. 정은희, 어머니와 자녀(여고생)의 의복선호도에 관한 연구, 조선대학교 대학원, 석사논문, 1983.
18. 이춘재, 청년심리학, 중앙적성출판사, p.187, 1994
19. 장병림, 청년심리학, 서울 법문사, 1966
20. 伊藤五子 外 9人. 衣生活におHの着裝の實態,(第2報), 「纖維製品消費科學會誌」, 23, p. 153-158, 1982
21. 유경숙, 여고생 교복 디자인 선호에 관한 연구, 한국의류학회지, Vol. 15, No. 3, p.26, 1991
22. Elizabeth B. Hurlock, 박길순, 정현숙역, 복식의 심리학, 경춘사, p.27, 1990.